

## 충만한 진실의 삶

| 김홍호 | 이화여대 명예철학 박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관통할 때 충만한 진실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요한복음 12:24~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오늘은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지요.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야기를 할 때 소아·무아·대아란 말을 했는데 “밀알 한 알이” 하는 것이 ‘소아小我’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는 것이 ‘무아無我’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대아大我’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알기 쉽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아가 대아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소아가 대아가 되기 위해서는 무아의 세계를 건너가야 됩니다. 무아라는 세계를 건너가지 않으면 대아가 될 수 없지요. 결국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소아가 어떻게 대아가 되느냐. 소아는 무아를 통해서 대아가 되는 것입니다. 무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아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무아예요. 이 ‘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선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희랍어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다. 무슨 기름인가. 은혜와 진리의 기름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그릇, 그것이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실>이라 했습니다.

‘진실’이란 무슨 말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진실이지요. 철학에서는 ‘진실 존재’를 ‘실존’이라 표현하는데, 진실이나 실존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것이 진실이지요. 진 자는 참 眞 眞 자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실 實 자는 넘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예수님 당시의 신약성경에는 희랍말로 썼는데, 희랍말로 진실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진실, 진실’ 그 소리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처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옛날 성경에서는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희랍말로도 아멘이지만 라틴어, 영어, 독일어, 불어로도 아멘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네 복음 속에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7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또 진실이라는 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예수님 자체를 진실이라고 보아야겠지요.

공산주의자인 레닌 Nikolai Lenin이 1917년에 소련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소련을 혁명하고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거기서 전기를 발전시켜 내고 그리고 준공식 할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가. 요새 비가 안 오는데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틀면 비 안 온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호남에는 굉장한 가뭄인가 봐요. ‘가뭄’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지요. 이때는 ‘홍수 났다’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강에 댐을 막아, 가뭄 때는 거기에 가득 채워 두었던 물을 놓아주고, 비 많이 올 때는 댐에 물을 가득 채워 홍수가 안 나게 하여 언제나 알맞게 물을 쓸 수 있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비 오면 홍수 나고, 가뭄면 다 말라버리는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이 자연을 우리가 필요할 때나 써야 될 때 쓰고, 저축해야 될 때 저축하며 알맞게 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지요.

며칠 전에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얼핏 들었는데 연중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를 다 합하면 2천억 톤인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 속에 갇혀 있는 물, 지하수가 4백억 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은 18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20억 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우리가 쓰는 양의 백배가 되는 셈이지요. 또 우리 땅 속에 숨어있는 물만 해도 20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릇에 잘 받아두었다가 쓰면 그것이 진실이지요. 2천억 톤 내리는 가운데 20억 톤만 받아두었다가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릇에 받아두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흘러갈 것 다 흘러가고, 가뭄면 꼼짝 못하고, 비 오면 야단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진실로 바꾸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구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주 위에 오리건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콜롬비아라는 강이 흘러갑니다. 콜롬비아 강을 누가 구경 가져고 그래요. 콜롬비아 강에 무엇을 보러 가느냐고 했더니, 그곳에 가면 연어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고기가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자고 해요. 연어가 상류에서 알에서 깨어난 후 바다에 가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큰 물고기가 되어서는 다시 알을 낳으러 꼭대기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그 콜롬비아 강에 댐이 있어서 연어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올라가게 하려고 큰 수로로 꼭대기까지 사다리를 놓았어요. 물고기들이 그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하여튼 몇 백만 마리인지, 몇 천만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딱 차서 올라가요. 자, 그 사람들 강 하나에다 댐을 12개씩이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물을 잡고 전기를 내고 물고기를 기르고,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2천 억 톤의 물을 받으면 2십 억 톤만 세숫대야에 담아두든지 어디에 담아두든지 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이란 흘러가는 강물을 딱 막아 가지고 그것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흘러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독에 부딪쳐서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그렇게 돌아와서는 물이 딱 차지요. 위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와 물이 딱 차면 그 다음에는 물이 넘치고 그 속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큰 연어들이 뛰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그리고 전기를 낼 때는 내고, 관광하고, 보트 타고, 수상스키 타고,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춘천 다목적 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흘러가는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딱 막아가지고 물이 내려오다 딱 부딪히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이 자꾸자꾸 모여서 가득 차면 그때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는 것을 오게 하는 이것이 진실이에요.

시간을 자른다는 말은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고 결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한 말이 있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왜 인생이 허무한가,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자꾸 가니까, 자꾸 지나가고 지나가다 한 70년 지나가면 다 되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 지나가는 시간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실만 가지고는 역사는 이룩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흘러가는 시간을 딱 막아야 합니다. 댐으로 딱 막아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을 돌아오게 해야 돼요. 시간이 자꾸 흘러만 가지 오지는 못한다, 그런 뜻으로 쓴 한문자가 미래未來입니다. 미는 못할 미未자, 래는 올 래來 자예요. 자꾸 가기만 하지 오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시간이란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미래라는 숙어를 고쳐서 장래將來라고 해요. 장 자는 가져올 장將 자, ‘장차’라고 할 때 쓰는 장 자지요. 래 자는 올 래來 자, 저쪽으로 가는 것을 가져온다, 가져옴, 그것이 장래예요. 그리고 과거는 지나갔다, 지나가면 다시 없다, 그게 아니에요.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것을 기재라고 합니다.

이미 기<sub>既</sub> 자, 있<sub>을</sub> 재<sub>在</sub> 자, 자꾸자꾸 쌓인다는 거지요.

요새는 또 현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현존<sub>現存</sub>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현존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딱 잘라놓으면 시간이 가다가 도로 와요, 도로 오니까 장래지요. 그래서 흘러오는 물이 자꾸자꾸 짝 잡니다. 진실이지요. 짝 차가지고 나중에는 넘치고 물고기가 뛰어 올라 옵니다. 이게 소위 현존이에요. 각존<sub>覺存</sub>이라고도 하지요.

옛날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금강경<sub>金剛經</sub>에 있는 말인데 “과거심도 불가득<sub>不可得</sub>이요, 현재심도 불가득<sub>不可得</sub>이요, 미래심도 불가득<sub>不可得</sub>이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가 없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 붙잡을 수가 없고, 현재라는 것이 현재라는 순간에 지나가버리고 마니 붙잡을 수가 없고, 그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붙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시간이 없으니 잡을 것도 없지요. 그래서 불가득이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했어요. “과거라는 것을 왜 못 잡느냐. 과거라는 것은 ‘기억’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미래라는 것을 왜 못 잡느냐. 미래라는 것은 ‘기대’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현재라는 것은 왜 못 잡느냐. 현재라는 것은 ‘자각’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나라’, 즉 《신국<sub>神國</sub>》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철학을 계승한 사람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이지요. 하이데거는 시간은 오는 것이다, 시간은 쌓이는 것이다, 시간은 넘치는 것이다, 진실이지요. 이것을 헤겔식으로 말하면 지양이라는 것이지요. 지<sub>止</sub>라는 것은 흘러가던 물이 딱 멈춘다. 그칠 지<sub>止</sub> 자, 똑! 댐을 둬이라고도 하지요. 똑, 그러면 그쳤다 이거예요.

요. 똑! 그쳤어요. 이것이 지예요.

그 다음에 보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이 자꾸 차온다, 자꾸 차오면 나중에 무엇이 되나, 물이 넘치고 물고기가 뛰어오른다. 그것이 양양(仰揚)이에요. 지존양(止存揚)인데 그걸 한마디로 지양, 그렇게 말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것을 허무하지 않고 충만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나. 그냥 사실대로 내버려두면 인생이란 백 년, 천 년, 만 년을 살아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라는 것을 똑 자를 수만 있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충만하고, 진실하고, 행복한 것이 없는 거지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똑 자르는 이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충만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소망이다. 넘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기대 속에, 현재는 자각 속에, 이것을 합쳐서 어거스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때에 그것이 진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잘라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시간을 자른다는 말은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고 결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끝) 

- 이 글은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김흥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흥호 지음 | 사색 | 정가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예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 김흥호 선생의 마음을 밝히는 책들



## 주역강해 1, 2, 3

도서출판 사색 / 각 권 15,000원

역경은 점치는 책이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김흥호 선생이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강의교재는 「원본집주 주역」(명문당)을 사용했다.

##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1. 철인들의 사상 / 2. 실존들의 모습 / 3. 문학속의 철학

도서출판 사색 / 각 권 12,000원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플라톤, '에티카'의 스피노자, '순수이성비판'의 칸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니체,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철인들과 그 사상에 관한 신학자 김흥호 선생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서양철학을 우리의 심성으로 이해하고 읽어나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원각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 12,000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경으로 알려진 원각경에 대해 김흥호 박사가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편집했다. 원각경 원문을 손수 발췌 요약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다른 불경 가운데서 인용한 것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록으로 고린도서 주해가 실려 있다.



## 법화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 15,000원

저자가 2000년 3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법화경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하여 글로 옮겨 정리한 것. '서품'부터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